

고성지역 건전한 청소년문화 선도

고성청소년수련관 개관식 ... 댄스연습실 · 체육관 · 북카페 · 청소년공부방 등 갖춰

고성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인 고성청소년수련관이 지난 5일 오전 10시 기관·사회 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경동대 DOS댄스 축하공연 및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축하공연에 이어 청소년 현장낭독, 인사말, 축사, 현판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성청소년수련관은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2008년 12월에 착공해 지난해 11월 30일 준공했으며,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95㎡의 규모다.

고성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 2월 18일 한국YMCA전국연맹유

지재단 속초YMCA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고성청소년수련관은 1층에 댄스연습실, 체육관, 사무실, 음악연습실을 비롯해 사무실, 회의실, 컴퓨터실을 갖췄다.

2층에는 다목적실, 북카페, 창작작업실, 상담실, 세미나실 들어섰다. 3층은 청소년 아카데미 공부방으로 꾸며져 있다.

이날 개관식과 함께 제6회 청소년문화축제가 열려 청소년들에게 재능발표와 성취의 기회를 제공했다.

고성지역 초중고 학생 700여명이 참여해 클레이아트 가족사진 만들기, 요리쿠키체험, 페이스페

인팅, 풍선아트, 플리머클레이, 비누향초공예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즐겼다.

또 스타크래프트 대회, 에스보드, 엑스슬라이더, 플로어볼 등 이색스포츠 체험과 익스트림 장애물, 무지개슬라이딩, 에어바운스 체험 등의 신나는 게임마당도 펼쳐졌다.

고성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오늘 개원식을 계기로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



지난 5일 열린 고성청소년수련관 개관식 모습.

그램을 제공해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선도하겠다”며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청소년복지와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도내 최고 시설 고성연화마을 개원

건봉사복지재단 운영 ... “어르신들이 행복한 공간”



고성연화마을 개원식. 우측 위는 건봉사 주지 도후 스님이 인사말하는 모습. 우측 아래는 원장 송담스님 모습.



도내 최고시설을 자랑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인 고성연화마을(원장 송담 스님)이 지난 4일 건봉사 주지 도후 스님과 황종국 고성군수,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건봉사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고성연화마을은 간성을 해상리 290번지에 국도비 등 2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9년 12월 착공했으며, 7,111㎡의 부지에 연면적 1999.53㎡의 규모로 건립됐다.

1층은 물리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식당으로 꾸며졌

으며, 2층과 3층은 각 방당 4명씩 입소할 수 있는 입소실 10개와 목욕실, 간호사실, 자원봉사실, 케어실 등이 갖춰져 있다.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성연화마을은 족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고 입소자들의 건강관리와 다양한 여가활동을 돕게 된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노인요양 인정 1, 2등급 및 3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아야 한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입소할 수 있다.

입소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자는 전액 무료이며, 일반인은 장기요양급여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날 개원식에서 건봉사 주지 도후 스님은 “고성연화마을이 있기까지 큰 힘이 되어 준 고성군과 자원봉사자 및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강원도내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부하는 만큼, 입소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에는 이번에 개원한 고성연화마을을 외에도 고성소망노인요양원, 성효원, 까리파스마태오 요양원 등 모두 4개의 노인요양시설이 갖춰져 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교육지원청 안전한국훈련 실시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고성교육지원청은 1일차인 2일 공무원 비상근무발령이 오전 6시에 선포됨에 따라 직원 비상근무조 전원이 1시간 안에 전원 참가했다. 또 3일차인 4일 실시된 지진(해일)대응 대피훈련은 거진항 일대에서 근처 주대피 장소인 거성초등학교로 학생들이 실제 대피하는 현장통합 훈련을 실시했다.

최광호 기자

인흥초 소화기 사용법 등 훈련



인흥초등학교(교장 한성원)는 지난 3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실습 및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상황을 가정해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점검해 보고, 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박승근 기자